



배성황 대표

지난 98년 3월 대만을 상대로 육용종계를 첫 선적했던 (주)삼화육종(대표 배성황)이 지난달 22일 마침내 종계 수출실적 1백만달러를 쾌거를 달성했다.

단순히 외화획득규모만 따져볼 때는 일반 제조업 분야와 비교해 일천한 것이겠지만 살아있는 생물, 그것도 축산의 씨앗이라고

와 공급을 통한 생산비절감이라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됐다. 실제로 종계수출을 위해서는 원종계의 철저한 위생 및 사양관리와 함께 판매후 철저한 사양관리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위해 삼화육종은 각 계군 당 16회에 이르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헬스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물론 로스사와 아바에이커 본사에 매년 2회의 혈청검사 및 사료분석검사를 실시, 객관적인 계군 점검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모든 원종계 계군의 농장별 올인 올아웃이 실



-한국계육산업의 대들보-
(주)삼화육종

"용고집이었기에 일궈낼 수 있었던 종계수출의 신화"

할 수 있는 종축을 수출품목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삼화의 종계수출은 일회성이나 잉여물량에 대한 처분차원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까지 총 41만3천4백25수의 육용종계를 대만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 수출한데이어 올들어서는 그 대상국을 베트남과 필리핀은 물론 아시아의 최고의 닭고기 생산국인 태국에 이르기까지 대폭 확대하게 됐다.

이를통해 오는 4월까지 22만3천여수의 수출계약이 성사, 지난해까지의 총 수출물량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이같은 추세로 볼 때 올연말까지 50만수는 너끈히 넘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곧 삼화의 기술력과 품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국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삼화육종의 수출활성화로 생산의 기초단계에서부터 수급조절이 가능케 됐을 뿐 아니라 우수종계의 안정적 확보

현되고 있으며 외부인의 출입을 최소화하되 그나마 모든 출입자나 물품까지도 별도의 수차례의 소독과 샤워과정을 거쳐야 농장내 반입이 가능하다.

또 사료별크와 연료저장탱크도 모두 농장의부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본사의 확인증 소지를 전제, 불가피한 각종 차량의 농장통행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이들에 의한 질병오염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화육종의 질병방역에 대한 집착과 함께 축산물 안전성확보를 위한 기반구축에 대한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세계적으로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농장에서의 HACCP 적용을 위해 유럽에서 기준도입에 나서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장에서의 SOP마련을 비롯, 막대한 예산과 전문인력 투입을 필요로 하는 별도의 실험실 설치를 추진, 자사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금질병전문가 송창선 박사를 필두로 자체 수의사에 대한 영국 연수실시는 물론 일부 실험장비 도입까지 이뤄진 상황이다.

이곳 실험실은 혈청검사는 물론 바이러스 분리와 각종 약제에 대한 감수성 실험 등 웬만한 방역기관 넘어선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삼화원종의 계획. 삼화원종이 추진하고 있는 또하나의 야심작이 바로 무균사료공급체계의 확보다.

이를위해 퓨리나사료와 협의, 사료공장에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약제 첨가가 아닌 생산공정상 자체에서 살모넬라 등을 콘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주문사료형태로 금년부터 사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업전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요구하는 시대적 추세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는 씨앗에서부터 청정화가 돼야한다는 배성환 사장의 의지의 산실이다. 특히 사료공장의 식품공장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배사장의 지론.

지난해 자체소유 40만개 용량의 부화장을 인근 GPS농장에 질병을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하나만으로 추후 활용 계획도 없이 폐쇄한 것은 배사장의 질병방역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사육시설에 대한 재투자도 끊임없이 이어져 최고의 최첨단 계사시설이라는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계사내 정보를 본사로 전산망을 통해 전달 및 저장해 콘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INFORMATIC)과 로스, 아바에이커사 기술담당자와의 정기적 기술지도와 유선상을 통한 수시의견교환, 육종회사에서 권장하는 영양사료 공급 등 한차원앞선 소프트웨어의 운영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삼화육종의 존재를 가능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대한 영향은 비단 회사차원

에서 그치지 않는다. 바로 국내 전체 육계산업의 생존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삼화육종의 GPS수입량은 9만여수 수준(로스 208 3만수, 308 3만수, 아바에이커 3만수). 10개의 농장에서 국내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연간 2백50만수의 종계와 함께 5%정도의 실용계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계열화업체에서 자체 공급을 위해 생산하고 있는 종계를 제외하면 삼화육종이 육용종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들보라 말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아바에이커와 로스품종을 보유하면서 전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애비아겐(Aviagen)그룹의 10대고객에 포함되는 중요거래처 이고도 하다.

따라서 삼화육종 한업체가 흔들리면 국내 육계산업 자체가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고집스러운 장인정신으로 끊임없는 재투자와 연구노력도 바로 국내 육계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좌우하는 키를 쥐고 있다는 이에따른 책임감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제 그 삼화원종이 회사상호를 삼화육종으로 변경, 본격적인 전문육종회사로 거듭나려한다. 이미 양돈부문에서도 연간 5천여두의 종돈과 2만7천두의 비육돈을 생산하는 주요 육종사로 자리잡은 지 오랜 것을 감안하면 다소 늦은감도 없지 않지만 기업과 나아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삼화육종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짐으로써 우리 육계산업의 미래에도 밝은 햇살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종축사업과 수출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아울러 당부해 본다. ☺

(객원기자 이일호)

